

韓中 岳陽樓 文化景觀 比較 考察*

崔 鍾 仁
(상명대학교)

1. 들어가는 말

악양루는 中國 湖南省에 있는 중국 최대의 호수 洞庭湖의 동쪽 岳州府에 있는 府城의 서쪽 문 누각으로, 동정호를 한 눈에 전망할 수 있는 풍광이 매우 아름다운 곳이다. 누각 아래쪽으로는 동정호가 보이며, 앞으로는 군산, 북쪽으로는 장강이 접해 있다. 따라서 악양루는 강남 3대 명루의 하나로 손꼽힌다.

중국 역대 수많은 시인 묵객들이 동정호를 유람하고 악양루에 올라 자신들의 심경을 토로하였다. 때로는 세찬 바람과 오랜 장마 비로 스산해진 동정호를 바라보며 정치권력으로부터 소외되어 우울한 심정을 토로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때로는 화창한 봄날 새가 울고 꽃이 피어 화기로 가득한 동정호를 바라보며 세상의 모든 시름 다 잊고 즐거움을 만끽한 사람도 있었다. 따라서 악양루 안에는 아직도 동정호와 악양루를 읊은 수많은 시문과 그림이 새겨져 있다.

이처럼 악양루는 시인묵객들의 정신적 공간인 동시에 아름다운 자연경관

* 이 논문은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7-362-A00032).

이 보태어진 문화공간이 되었다. 그래서 악양루는 ‘天下第一樓’로서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의 경관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악양루의 문화경관을 비교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 중국의 악양루와 문화경관

1) 중국 악양루 누각 건립과 역사

악양루는 호남성 武漢의 黃鶴樓와 江西省 南昌의 滕王閣과 함께 강남 3대 명루로 꼽힌다. 악양루는 북으로는 장강을 바라보고 동으로는 洞庭湖를 내려다 볼 수 있는 20미터 높이의 3층 대방형 누각이다. 이는 당나라 때인 716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지붕의 곡선과 황금색 유리기와가 절묘하게 조화가 이루어져 있다.



그림1 동정호



그림2 악양루

악양루는 삼국시기 오의 대도독 노숙이 수군을 열병하고 단련시키기 위해 건설한 건축물인 閱軍樓를 토대로 한 것이다. 때문에 이 누각은 원래 목적이 군사적인 용도로 활용되었던 이유로 唐代 이전까지는 주로 군사 요충지로서의 역할만 해 왔다.

당대에 이르러 岳陽樓는 개원 연간(713-714) 岳州의 太守 張說이 기존의 건물을 수리하여 중건하고 ‘岳陽樓’라고 이름을 붙인 이후, 이백, 두보,

이상은, 李群玉 등과 같은 騷人墨客들의 遊覽과 詩作의 장소가 되었다.

그러나 정작 이곳이 그 이름을 크게 떨치게 된 시기는 宋代이다. 1044년 藤子京은 이곳 태수로 貶謫되어 퇴락해진 누각을 증수하게 되는데, 그때 그는 范仲淹(989-1052)을 초청하여 그 유명한 「岳陽樓記」를 짓게 한다. 이 글은 비록 길지 않은 비교적 짧은 산문이지만 그 내용이 깊고 문장이 좋아서 당시 지식인들은 물론 후세에까지도 널리 읽히며 악양루를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었던 계기를 만들었다.

그 후 악양루는 청대에 지금의 모습과 크기로 복원되었다. 악양루는 主樓를 중심으로 우측으로 三醉亭, 左편으로 仙梅亭이 있고, 누각 주위에 西大門, 岳陽門, 杜甫亭 등이 배치되어 있다.¹⁾



그림3 선매정



그림4 삼취정

2) 중국 악양루의 문화경관

중국의 악양루가 지금의 악양루라는 명성을 지니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악양루가 가지고 있는 문화경관의 영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문화경관 가운데 인문경관을 구성하는 문학과 회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http://cafe.daum.net/incheon-love/4Dq1/57?docid=1EYI7/4Dq1/57/20080626173659&q=%C1%DF%B1%B9%20%BE%C7%BE%E7%B7%E7>

(1) 문학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악양루가 유명해지기 시작한 것은 범중엄이 「岳陽樓記」를 지은 이후, 여러 시인묵객들에게 문화공간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범중엄은 이 글에서 악양루의 문화공간이 형성되는 간단한 과정을 소개로 글을 시작하고 있다.

慶曆 4년 봄 등자경이 귀양 와서 巴陵郡의 태수가 되었다. 이듬해에 정사가 잘 되어 백성이 화합하니, 많이 피폐했던 일들이 한 가지로 다 흥성하였다. 그리하여 다시 악양루를 다시 수리하고 그 본래의 제도를 더하여, 唐의 현인들과 지금 사람들의 詩賦를 그 樓上에 새겨 붙이고, 나에게 부탁하여 문장을 짓게 하고, 또 기록하여 현판을 만들어 걸기로 하였다. (慶曆四年春, 騰子京謫守巴陵郡, 越明年, 政通人和, 百廢俱興. 乃重修岳陽樓, 增其舊制, 刻唐賢今人詩賦于其上, 屬予作文以記之.)²⁾

등자경은 기존의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었던 악양루를 인문적 요소가 가미된 문화경관으로 탈바꿈시켰다. 이를 위해 그는 당대와 송대 시인묵객들의 시와 부를 판각하여 악양루를 장식하고, 당시 그 지역의 이름있는 문사였던 범중엄에게 부탁하여 악양루에 대한 글을 짓게 하여 문화경관으로서의 모습을 재정비하여 형성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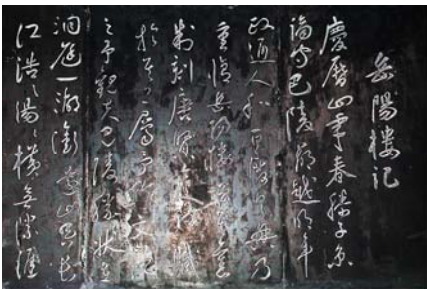


그림7 범중엄의 악양루기



그림5 악양루서각1



그림6 악양루서각2

2) 钟基, 李先银, 王身刚译注, 『古文觀止』, 中华书局, 2009

범중엄은 등자경의 청탁으로 지은 「岳陽樓記」안에 태수 등자경의 당시 사회와 고대로 내려 형초지역 문인들의 정서를 잘 담아내고 있다.

내가 대강 파릉군의 훌륭한 경치를 돌아보니, 洞庭湖를 중심으로 하여 그 가운데 모든 좋은 경치가 들어 있다. 호수는 넓고 아득하여 멀리 산을 입에 물고 있는 것 같고, 長江을 머금은 듯 끝없는 물줄기가 뻗어 있어서, 그 모양은 한없이 넓어서 옆으로 끝 간 데를 모름 만큼 펼쳐 있다. 아침 햇살과 저녁 어스름에, 구름과 바람과 그 밖의 모든 경물의 변화는 천차만별의 여러 가지 경치를 나타낸다. 이것이 악양루를 크게 바라본 풍경이다. 이 풍경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술회한 것 가운데 무엇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을 만큼 충분하다.

그들이 술회한 문장과 같이 북쪽은 巫峽의 급류와 통하고, 남쪽은 멀리 瀟水와 湘水에 미치어, 이 지방은 고대로 귀양살이 하는 불운한 사람과 뜻을 얻지 못한 시인·묵객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들이 이 악양루를 돌아보는 정감은 각기 다 신상의 처지에 따라서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겠는가? 실로 가지각색의 심경이었을 줄로 생각한다.

만약에 장마 비가 구질구질 달포에 이어져 개이지 않고, 어두운 바람이 노도처럼 불어 흐린 물결이 공중으로 치솟고, 해와 별이 빛을 감추고, 산악이 형체를 감추고, 장사치와 나그네가 다니지 못하고, 담장이 무너지고, 돛대가 부러지고, 초저녁에 날이 어두워지고, 호랑이는 울부짖고, 원숭이가 울음 우는 때에 이 누대에 오르면 나라를 떠나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루 형용하기 어려울 것이며, 誣告를 걱정하고, 謀略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쓸쓸할 것이며, 감정은 격동하여 슬픔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만약에 봄의 기후가 화창하여 풍경이 밝고, 동정호의 물결도 일지 않고, 위의 하늘과 아래의 수면에 비친 빛깔이 서로 비치어서 푸른빛이 만 이랑으로 넓게 펼쳐지고, 모랫벌에 사는 갈매기가 날아 모여들고, 비단처럼 고운 비늘을 가진 물고기가 한가롭게 헤엄을 쳐 돌아다니고, 언덕의 백지풀과 물가의 난초가 향기롭게 파릇파릇 돌아나고, 혹은 또 길게 가로질린 운애가 하늘 한편에 걸리고, 수면에 비친 달은 금빛 이랑이 되어 뛰놀고, 고요한 물에 비친 달그림자는 흰 구슬을 잠가 놓은 듯하다.

어부의 노래 소리가 서로 화답을 하는 그런 광경에 이르러서는 이 아름답

다운 경치를 바라보는 즐거움이 어찌 다할 수 있겠는가? 그런 때에 이 누각에 오르면 마음은 아주 거리낌 없이 훤히 넓어지고 정신도 상쾌해져서 군주에게서 받은 사랑이나 욕됨을 다 잊어버리고, 술을 손에 들고 바람 앞에 앉으면, 그 기쁨은 한 없이 크고 넓으리라.

(予觀夫巴陵勝狀，在洞庭一湖。銜遠山，吞長江，浩浩蕩蕩，橫無際涯，朝暉夕陰，氣象萬千，此則岳陽樓之大觀也。前人之述備矣。然則北通巫峽，南極瀟湘，遷客騷人，多會于此，覽物之情，得無異乎。若夫雨，連月不開。陰風怒號，濁浪排空，日星隱曜，山岳潛形，商旅不行，檣傾楫，薄暮冥冥，虎嘯猿啼，登斯樓也，則有去國懷鄉，憂讒畏譏，滿目蕭然，感極而悲者矣。至若春和景明，波瀾不驚，上下天光，一碧萬頃。沙鷗翔集，錦鱗游泳，岸芷汀蘭，郁郁青青，而或長煙一空，皓月千里。浮光躍金，靜影沈璧。漁歌互答，此樂何極。登斯樓也，則有心曠神怡，寵辱俱忘，把酒臨風，其喜洋洋者矣。)³⁾

위의 내용으로 보아, 범중엄은 악양루가 있는 이 곳은 풍광이 아름다운 훌륭한 곳이지만, 예로부터 이곳에 모이는 부류는 주로 귀양살이하러 오는 이들이나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한 이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굴원과 같은 심경으로 이곳을 찾아와 거대하고 아름다운 풍광을 보며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한탄하며 위안을 받고 자신의 품은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심경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작품의 모티브는 범중엄 이전에 이곳을 다녀갔던 이들의 작품에도 비슷하였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두보의 「登岳陽樓」와 이백의 「與夏十二登岳陽樓」를 들 수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⁴⁾

登岳陽樓 杜甫

昔聞洞庭水 오랜 전에 동정호에 대하여 들었건만,
 今上岳陽樓 이제야 악양루에 오르게 되었네.
 吳楚東南瞬 오와 초는 동쪽 남쪽 갈라 서 있고,
 乾伸日夜浮 하늘과 땅이 밤낮 물 위에 떠 있네.

3) 钟基, 李先银, 王身刚译注, 『古文觀止』, 中华书局, 2009

4) 『全唐詩』, 中华书局, 2011

親朋無一字 친한 친구에게조차 편지 한 장 없고,
 老去有孤舟 늙어가며 가진 것은 외로운 배 한 척.
 戎馬關山北 싸움터의 말이 아직 북쪽에 있어,
 憑軒涕泗流 난간에 기대어 눈물만 흘러네.

與夏十二登岳陽樓 李白

樓觀岳陽盡 악양루에서 악양이 다 보이고,
 川迥洞庭開 시내는 멀고 동정호가 펼쳐 지네.
 雁引愁心去 기러기는 시름을 가져가 날아가고,
 山銜好月來 산들도 좋고 달도 떠오르네.
 雲間連下榻 구름 사이에 숙소 정해 머물고,
 天上接行杯 하늘 위에서 술잔 돌려 마시네.
 醉後涼風起 취하니 서늘한 바람 불어,
 吹人舞袖回 휘돌아 춤추는 사람 소매 깃을 휘도네.

위의 이백과 두보의 시상 역시 기본적으로 처연함과 그리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위의 두 작품들을 통해, 악양루를 찾은 시인묵객들은 사회·정치적으로 시련을 겪었거나 소외당하여 힘든 마음을 그 곳의 풍광을 보고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고 위로를 받고자 하는 욕망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범중엄은 위의 처연함과 외로운 정서를 지니는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여 문인과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 나는 일찍부터 옛날의 어진 사람의 마음을 구하고 있었더니, 혹은 앞에서 든 것과 같은 두 가지 경우의 슬픔과 즐거움이 각각 다른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인간애를 행하는 어진 사람은) 外物로 말미암아 기뻐하지도 않으며, 자신의 개인 일로 슬퍼하지도 않는다. 조정의 높은 지위에 있을 때는 그 백성을 위해 걱정하고, 지방에 멀리 떠나 있을 때는 그 임금을 위해 걱정하니, 이것은 조정에 나아가 벼슬을 하고 있을 때도 걱정이며, 물러나 있을 때도 또한 걱정인 것이다. 그러고 보면 어느 때나 즐거울 것인가?

그 사람은 반드시 천하의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을 앞서서 걱정하게 되며, 천하의 사람들이 즐거움을 누린 뒤에야 즐거움을 누린다고 하리라. 아! 이런 어진 사람이 없으면 나는 누구를 좇아 함께 할 것인가?

(嗟夫, 予嘗求古仁之心, 或異二者之爲는 何哉. 不以物喜, 不以己悲, 居廟堂之高, 則憂其民, 處江湖之遠, 則憂其君, 是進亦憂, 退亦憂, 然則何時而樂耶. 其必曰, 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歟. 噫, 微斯人, 吾誰與歸.)⁵⁾

위의 글 가운데 범중엄은 “(인간애를 행하는 어진 사람은) 外物로 말미암아 기뻐하지도 않으며, 자기의 개인의 일로 슬퍼하지도 않는다.(不以物喜, 不以己悲.)”와 “천하의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을 앞서서 걱정하게 되며, 천하의 사람들이 즐거움을 누린 뒤에야 즐거움을 누린다고 하리라.(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은 그의 정치와 삶의 자세를 가장 잘 볼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이 글에서 자연풍광을 대할 때 나타나는 이 두 가지 부류의 사사로운 감정과 정서를 뛰어넘으려는 범중엄의 숭고한 정신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사회지도자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국가와 국민을 걱정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범중엄의 위 두 구절은 사회지도자 된 자는 주변 여건과 개인 득실에 관계없이 항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악양루를 소재로 한 글 가운데, 범중엄의 「악양루기」를 능가하는 명문을 찾아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글이 발표된 이후 악양루가 유명세를 뒀다고 해서 과언이 아닌 것이다.

(2) 회화

악양루는 瀟水와 湘水, 그리고 洞庭湖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와 어울려 일찍부터 시인묵객 뿐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이들의 관심 대상이 되기도 했다. 문화경관으로서의 악양루는 宋代 이후 이미 그림의 표현 대상이 되었다. 아래의 표는 바로 중국의 역대 악양루도를 정리한 것이다.

5) 钟基, 李先银, 王身刚译注, 『古文观止』, 中华书局, 2009

時代	畫家	圖名
宋	院畫	岳陽樓圖
元	夏永(元末)	岳陽樓圖
明	佚名	岳陽樓圖軸
明	陳道復(1483-1544)	岳陽樓圖
明	謝時臣(1487-1548)	岳陽樓圖
明	安正文(生卒年月不詳)	岳陽樓圖
清	龔賢(1619-1689)	岳陽樓圖軸
清	張宗蒼(1686-1756)	岳陽大觀
清	石濤(1642-1707)	岳陽樓圖
清	石濤	江上浮峰
清	石濤	雁引愁心去, 山銜好月來
清	王翬(1632-1717)	洞庭秋霽
清	袁江	岳陽樓圖
近代	齊白石(1864-1957)	洞庭君山
近代	吳湖帆(1894-1968)	氣蒸雲夢澤, 波撼岳陽城
當代	蔣兆和(1904-1986)	親朋無一字, 老病有孤舟
當代	秦仲文(1896-1974)	波撼岳陽城



그림6 송대 「악양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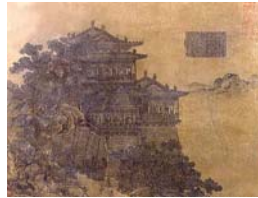


그림7 하영 「악양루도」



그림8 석도 「江上浮峰」

위 표의 악양루도 중 가장 대표적인 그림으로는 元末 夏永(字 明远)의 「岳陽樓圖」를 들 수 있다. 夏永은 钱塘(오늘날 浙江 杭州)사람으로, 宮殿 樓閣의 界画에 뛰어났으며, 이 그림은 그가 그린 「滕王閣圖」와 「黃鶴樓

图」와 함께 중국의 대표적인 누각 그림이다.

그는 그림 바탕에 스스로 “至正七年四月二十日，钱塘夏永明远画并题”라고 쓴 款識으로 보아, 이 그림은 元 至正7年(1347)에 그려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에는 “仪周珍藏”·“秘奇阁图书”의 鉴藏印이 보인다.

그는 虚实相應하는 对角线構圖를 사용하였는데, 3층의 岳阳樓를 화폭의 좌측에 배치하고 우측은 空白으로 두고 遠山이 떠를 두르도록 하여 공활한 느낌을 주었다. 筆法이 빼어나면서도 细密한데, 直线·横线·斜线·弧线 등의 여러 가지 선을 교묘하게 결합시켰다. 가볍고 무거운 윤곽과 뻑뻑하고 성근 선이 교차하면서 樓閣의 원근감과 체적감을 표현하였다. 이 그림은 예술적 기교와 문학성이 결합하여 서정적 효과를 내어 중국 고대 문화경관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크다.

3. 한국의 악양루와 문화경관

1) 한국의 악양루 건립과 역사

현재 한국에서 악양루라고 명칭한 누각은 경남 함안에 있는 악양루와 경남 악양면에 있는 악양루 두 곳이다. 우선 본 절에서는 이 두 악양루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 경남 함안 악양루 건립과 역사

이 누각은 경남 악양루 대산면 서촌리에 건립되어 있으며, 1992년 10월21일 경남 문화재자료 제 190호로 지정되었다. 안씨 문중에서 소유하며 문중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한다.

이 누각은 조선 철종 때인 1897년에 건립된 누각으로 남강과 함안천의 합류지점인 법수면에서 강을 건너면 기암절벽에 서 있다. 현재 건물은 옆에서 八자 모양의 단층 팔작기붕 건물로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인데, 6.25전쟁 이후 1963년 복원하여 중수했다.⁶⁾

누각에서 보이는 범수면의 제방과 넓은 들의 전방이 좋아 중국의 명승지인 악양의 이름을 따와서 누각의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옛날에는倚斗軒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菁南 吳齋峯(1908-1991)이 쓴 악양루라는 현판이 남아 있다.⁷⁾ 오재봉은 진주 기곡사 주지로 있다가 말년에는 부산에서 활동한 서예가이다.



그림11 경남 함안의 악양루

(2) 경남 악양면 악양루 건립과 역사

경상남도 하동군의 악양루는 경남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344-1 (섬진강대로 3087) 개치마을에 있으며, 비지정문화재이다.

현재 보존되어 있는 악양루는 2층 누각의 목조 건물로,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팔작 기와지붕으로 되어 있다. 겹처마에 막새기와로 덮여 있으며, 연등천장을 하고 있다. 지붕의 네 귀퉁이에 용머리 장식을 하였으며, 주심포 기둥으로 되어 있다. 누각을 중심으로 사방에 담장이 둘러져 있으며, 악양루 현판은 정면과 오른쪽 측면 두 곳에 걸려 있다. 마루는 장마루이다.⁸⁾

6) <http://100.naver.com/100.nhn?docid=737503> 참조

7) <http://heritage.daum.net/heritage/28795.daum> 참조

나당 연합군의 당나라 장군 소정방(592-667)이 중국의 악양과 같다고 하여 ‘악양’이라 이름 하였다는 일화가 전한다. 따라서 이곳에는 악양루와 동정호, 군산이라는 지명을 가진 곳이 이 모두 있다.

악양루의 창건 연대는 정확하지 않으나, 조선 시대에 악양루와 관련된 유학자들의 紀遊詩가 전하고 있다. 이곳의 변천 역사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전해져 오고 있지 않지만, 남아 있는 문헌 기록⁹⁾과 현전하는 건물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36년 손영인, 이태성, 박준구 등 하동 지역 인사들에 의해 중건하자는 발의가 있었고, 이어 1937년 9월 악양루의 옛 터인 아미산 아래 언덕에 준공하였다. 이후 누대가 너무 높은 곳에 돌출되어 있어 비바람에 견디지 못하여, 여론을 따라 1947년 현재 위치인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도로변으로 이건하였다. 1969년 다시 이건 논의가 제기되었으나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¹⁰⁾



8) http://kin.naver.com/knownow/detail.nhn?d1id=10&dirId=10&docId=663470&qb=7ZiE7J6sIO2VmOuPmSDsIYXslpHro6g=&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g8cL835Y7uCsbB8aI8ssc--333304&sid=T8GeT3aawU8AAHd-Aok

9) 『마을의 유래 및 사적전설』(하동문화원, 1986), 『河東樓亭齋誌』(河東文化院, 1997), 『땅 이름 큰 사전』(한글학회, 1982), 구자흠의 『하동지』(고향문화사, 1991) 참조

10) http://kin.naver.com/knownow/detail.nhn?d1id=10&dirId=10&docId=663470&qb=7ZiE7J6sIO2VmOuPmSDsIYXslpHro6g=&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g8cL835Y7uCsbB8aI8ssc--333304&sid=T8GeT3aawU8AAHd-Aok



그림12 경남 하동 악양루 전경 하동 동정호 전경

2) 한국의 악양루 문화경관

(1) 문학

국내 문학작품 가운데 직접 악양루를 대상으로 지은 시는 두 작품 정도 발견되고 있다. 가장 먼저 보이는 작품이 조선시대 사명당 대사(1544-1610)의 「악양 입구의 섬진강에 배를 대고 최고운의 옛 흔적을 찾음(泊岳陽江口訪孤雲舊跡)」이다. 이 작품의 본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¹⁾

배 한 척을 타고 새벽에 곤양성을 떠나,
해질녘 악양루 아래 바위에 배를 대었다.
계수나무 깊은 곳 금상은 어디에 있는가,
큰 학 한 마리만 날아갔다 날아오고 있구나.

11) 본고 논문 해석은 「古詩文에 나타난 岳陽樓」(<http://cafe.daum.net/akyangschool/G9Ht/34?docid=oy4H|G9Ht|34|20050602233248&q=%C1%DF%B1%B9+%BE%C7%BE%E7%B7%E7&re=1>)를 참고하였음을 밝혀 둔다.

해가 저물어 어촌에서 불씨를 빌어 밥을 해먹고,
 모래톱에서 싸리와 대나무를 태우며 밤을 지낸다.
 해 뜰 무렵 일어나 비로봉을 바라보니,
 구름이 동남쪽으로 흘러가고 천지가 일색이로다.

孤舟曉發昆陽城。
 暮泊岳陽樓下石。
 金箱下處青桂深，
 飛去飛來鶴一隻。
 黃昏餐火乞漁村，
 人夜汀洲燃楚竹。
 平明起望毘盧峯，
 雲盡東南天一色。

이 시는 유정 사명당 대사가 1559년 출가하여 전국 명산을 두루 다니며 도를 닦다가 지리산 쌍계사를 가던 길에 악양 미점리에서 하루밤 노숙을 하며 악양루를 보았던 내용의 시이다. 사명당 대사는 이곳을 지나면서 말년에 유랑 생활을 했던 고운 최치원을 그리며 이곳의 감회를 적었다. 그 역시 승려로 출가하여 득도를 위해 전국명산을 다니며 때로는 위의 시에서처럼 들뜬에 노숙을 하며 지내며 자신의 호젓한 감정을 시에 담았다고 볼 수 있다.

악양루를 읊은 또 다른 시로는 퇴계 이황의 학동을 계승한 영남학파의 거두인 갈암 이현일(1627-1704)의 시 「악양루 흔적에 오르며(登岳陽樓遺址)」와 「화개의 정여창 집터를 지나며(花開過鄭一斗遺墟)」이다. 작품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악양루 흔적에 오르며登岳陽樓遺址

풀 우거진 강 나루터 악양루 폐허의 땅을 찾았나니,
 군산의 낙조는 오히려 의연하도다.
 뭇 楚를 머금은 광활함과 아름다움을 뭐라고 형언하겠는가,
 조물은 실로 조그만 동전을 만들었도다.

爲訪遺墟草浦邊

君山落照尚依然
 關吞吳楚何須說
 造物真成小有天

화개의 정여창 집터를 지나며花開過鄭一斗遺墟

지난해 종산서원을 찾아 흔적을 어루만졌지만
 백년의 원통한 한이 오늘까지 머물고 있다
 남쪽으로 내려와 우연히 화개현을 통과하노니
 평소 생각에 더 보태어도 그를 그리워함은 다함이 없도다.
 昨歲種山撫遺跡
 百年冤恨至今留
 南來偶過花開縣
 想像還添不盡愁

위의 두 시는 이현일이 1694년 함경도 종성에 유배되었다가 1697년 광양으로 유배지가 옮겨져 이동하는 도중 악양루 옛터를 지나다 지은 시이다. 그런데 우연히도 정여창 역시 함경도 종성에 유배되어 종산서원에 배향되었는데, 이현일은 정여창의 집터를 지나며 남달리 감회가 새로웠던 것이다. 따라서 이현일은 이 곳 악양루 옛터와 정여창 옛 집터를 지나며 마치 중국 악양루를 거쳐 간 시인묵객들이 지냈던 바로 회재불우한 심정으로 악양루 경관을 바라보았던 것이다.

(2) 회화

본 절에서는 한국의 「岳陽樓圖」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한국에서 岳陽樓를 묘사한 대표적인 회화작품은 아래와 같다.

年代	畫家	圖名
고려	李光弼(고려 명종시기)	瀟湘八景圖
朝鮮	安堅(조선 초)	瀟湘八景圖 〈洞庭秋月〉

朝鮮	李秀文(1404-?)	岳陽樓圖
朝鮮	李澄(1581-?)	瀟湘八景圖〈洞庭秋月〉
朝鮮	金明國(조선 중기)	瀟湘八景圖〈洞庭秋月〉
朝鮮	李德益(17세기)	瀟湘八景圖〈洞庭秋月〉
朝鮮	鄭敷(1676~1759)	小岳候月(〈京郊名勝帖〉陽川十景)
朝鮮	尹斗緒(1668-1715)	瀟湘八景圖〈洞庭秋月〉
朝鮮	沈師正(1707-1769)	瀟湘八景圖〈洞庭秋月〉
朝鮮	崔北(1712-1786?)	瀟湘八景圖〈洞庭秋月〉
朝鮮	金得臣(1754-1822)	瀟湘八景圖〈洞庭秋月〉
朝鮮	李在寬(1783-1837)	瀟湘八景圖〈洞庭秋月〉

위의 표와 같이 악양루만을 묘사한 작품은 李秀文의 「악양루도」가 유일하고, 이외에는 瀟湘八景圖 중 〈洞庭秋月〉 속에 묘사된 岳陽樓가 대부분이다. 우선 이수문의 그림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이수문의 「岳陽樓圖」는 대략 15世紀 前期작품으로 현재는 日本에서 個人이 所藏하고 있다. 이 그림은 「香山九老圖」와 화풍이 비슷한데, 중국의 악양루를 모델로 하여 그린 것이다. 이 작품은 中心軸에서 약간 왼편으로 벗어났으면서도 對角線的 구성을 이루고 있다. 近景과 後景 사이에는 비교적 넓은 공간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조선 초기의 한국 산수화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귀한 작품이다. 다음으로 소장팔경도에 묘사된 악양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安輝濬은 「瀟湘八景圖」의 화풍, 작가 및 작품 등을 역사적 시기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¹²⁾

- ① 고려후기-明宗代(1171-1197) 이광필의 소장팔경도.¹³⁾
- ② 조선초기-安堅畫風の 偏頗二段構圖 및 偏頗三段構圖로 병풍 제작, 世宗代 安平大君의 命에 의해 제작되었을 安堅의 소장팔경도(失傳)를 비롯하여 현전하는 소장팔경도로 國立中央博物館

12) 安輝濬, 「한국의 소장팔경도」, 『韓國繪畫의 傳統』, 文藝出版社, 1988.
 13) 李郭派 화풍의 「冬景山水圖」(일본 京都 相國寺 소장)를 통해 고려시대 소장팔경도의 화풍을 추정할 수 있으며, 두 경씩 합쳐서 묘사했던 양상을 엿볼 수 있다.(안휘준, 앞의 책, 167-168쪽)

소장품, 일본 坤月軒 소장품, 일본 嚴島 大願寺 소장품, 在日교포 泗川子 소장품.

- ③ 조선중기- 安堅畫風과 浙派畫風을 받았으며, 李澄·金明國·傅李德益 등의 소장팔경도. 각 폭의 고유한 특징이나 모티브가 생략되거나 다른 四時屏風에 일부가 첨부되는 양상을 보인다
- ④ 조선후기 및 말기-南宗畫風이 수용되었으며, 尹斗緒, 鄭敷, 沈師正, 崔北, 金得臣, 李在寬 등의 소장팔경도. 대개 破帖으로 전한다. 19세기 이후에는 정통화단에서의 창작이 많이 감소하였다.

위와 같이 高麗時代의 팔경도는 전하는 것이 없고, 조선 초·중기에 걸쳐 안견화풍이 유행한 것으로 볼 때, 소장팔경도의 전통은 安平大君과 安堅에 의해 형성되어 후대로 계승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 중기 이후 고유한 특징이나 모티브가 생략되거나 다른 사시병풍의 일부로 첨부되었으며 조선 후기나 말기에 이르러서는 破帖化되었다고 하였다.¹⁴⁾

4. 나오는 말

지금까지 중국의 악양루 문화경관과 한국의 악양루 문화경관을 각각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역대로 여러 문화 인사들이 중국 악양루 주변의 뛰어난 자연경관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여 문학작품과 그림을 그려 새로운 문화경관을 형성시켰다. 그들의 주요 감정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자신의 회재불우한 상황을 위로받고 다시 정계에 진출하고자 하는 욕망을 표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신의 인생관과 국가



그림13 이수문의 「악양루도」

14) 안휘준, 앞의 책, 176쪽.

관을 재정비하는 자세도 엿보인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의 악양루 문화경관 형성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고찰했다.

둘째, 한국의 악양루는 전적으로 중국 악양루 문화경관의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조선시대 문인들은 조선의 아름다운 산수에 그들이 글과 그림으로만 보고 흠모했던 중국 자연경관과 문화경관의 대표적인 명소인 악양루의 이름을 붙여 문화경관으로 탈바꿈하여 감상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현재 남아 있는 악양루가 두 개지만, 아마도 조선시대에는 악양루라고 하는 누각은 지금보다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경남 하동에 있는 악양루 부근에는 중국 악양루가 있는 근처 지명을 붙인 것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주제어

악양루, 문화경관, 한중, 자연경관

❖ 참고 문헌

- 钟基, 李先银, 王身刚译注, 『古文觀止』, 中华书局, 2009
『全唐詩』, 中华书局, 2011
安輝濬, 『韓國繪畫의 傳統』, 文藝出版社, 1988
河東文化院, 『마을의 유래 및 사적전설』, 河東文化院, 1986
河東文化院, 『河東樓亭齋誌』, 河東文化院, 1997
한글학회, 『땅 이름 큰 사전』, 한글학회, 1982
구자흠, 『하동지』, 고향문화사, 1991
그림 1, 2, 5, 6, 7: <http://www.eaimagebank.com/>
그림 3, 4: [http://image.baidu.com/i?tn=baiduimage&ct=201326592&lm=-1&cl=2
&word=三醉亭#pn=40](http://image.baidu.com/i?tn=baiduimage&ct=201326592&lm=-1&cl=2&word=三醉亭#pn=40)
그림 11, 12: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nfeel&logNo=1401325>

74264

그림 13: [http://blog.joinmsn.com/media/folderlistslide.asp?uid=pts47&folder=42
&list_id=11494118](http://blog.joinmsn.com/media/folderlistslide.asp?uid=pts47&folder=42&list_id=11494118)

❖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Landscapes of "Yueyanglou(岳陽樓)" in China and Korea

Choi Jong-in

China's Yueyanglou(岳陽樓) cultural landscape and cultural landscape of Korea, respectively Yueyanglou(岳陽樓) investigated and the following results were extracted.

First, multi-cultural personalities to ever Yueyanglou(岳陽樓) China's outstanding natural beauty around the emotion of his drawing on the literature and a new cultural landscape was formed. Their main feeling of the beauty of nature through his ash under adverse conditions up again in politics, which expresses the desire to advance. To this end, his outlook on life and also an attitude overhaul yeotboinda. This information formed the cultural landscape of Korea Yueyanglou(岳陽樓) not deviate from that has been investigated.

Second, Korea is entirely China's 'sun' Lou Yueyanglou(岳陽樓) was a significant effect of cultural landscape. The beautiful landscapes of the Joseon Dynasty literati in the Joseon reported only in words and pictures they admired China's leading natural and cultural landscape and paste the name of the famous 'sun' Lou watch it was transformed into a cultural landscape. For this reason, the current remaining two 'sun' Lou, but probably the Joseon Dynasty, called the 'sun tower base and is estimated to be more common than now. In addition, in Hadong Yueyanglou(岳陽樓) near the sun 'Lou, China has also attached near the nomination could be an important clue.

Keywords

Yueyanglou(岳陽樓), cultural landscap, China and Korea, natural landscap

논문접수일: 2012. 05. 10

심사완료일: 2012. 05. 21

게재확정일: 2012. 05. 25